



보이지 않는 영웅들(UNsung HEROES) 소식지 2020년 검토

주한미군전우회의 사명은 한미동맹을 대변하고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이들을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20 - 8호 2020년 12월

11월 뉴스 단선

11월 4일: 유엔 사령부 중립국 감시 위원단은, 휴전의 중립적인 참관인으로서 한반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합니다. 지난주 그들은 군사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이동하였으며 이러한 훈련은 순수하게 방어적이며 사실상 전쟁억제를 위한 목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유엔 사령부에 있는 우리는 그들의 변함없는 경계에 감사를 표합니다!

11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이 다음의 미 대통령으로서 발표된 이른 선거결과 이후 이틀간의 대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외교정책 고문들과의 회의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4일간의 방문 일정으로 워싱턴에 있습니다.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선인된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조할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한 대한민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린치핀"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문재인 @moonriver365
저는 조 바이든 당선인과 대화하였으며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그와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11월 18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님@Dog-FaceSoldier (25대 주한미군 사령관)께서는 대한민국 국방위원회를 캠프험프리에 초대하여 예우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우리의 결연한 약속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11월 19일: 미 국방장관 대행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강화하는 결실있는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미 국방성은 언론 공식발표에서 밀러 장관과 서욱 장관이 10월에 있었던 52차 한미국방안보협의회의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였습니다.

11월 30일: 해리 해리스 @USAmbROK (주한미대사)

11월 27일인 오늘은, 1950년 11월 27일에 시작된 잔혹한 17일간의 얼어붙은 날씨속에서 진행된 싸움인 장진호 전투의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속고는, 유엔군 및 한국군이 12만명의 중공군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 전투에서 희생된 영웅들을 향합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 한미 동맹 분기 별 저널은 2021년 1월에 발표됩니다.

또한 우리의 저널에 투고할 원고를 12월 11까지로 제출해주세요

년의 도전과제는 한미양국의 참전용사들과 한미동맹을 위해 주한미군 전우회를 더욱 열렬한 헌신으로 이끌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전우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한국전 참전용사를忆하며" 캠페인을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70주기를 기념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SNS 등 다양한 경로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양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우회 회원님들, 참전용사님들, 한미 정부 인사, 후원자님들 및 협력기관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를 연결했던 6개의 웨비나를 개최한 것을 포함합니다.

전우회 회원님, 후원자님들을 비롯하여 한화그룹(주) 같은 각계의 후원으로 전우회의 회원수는 20% 증가하였고 50만명 이상의 페이스북 계정 방문자, 6만 4천건 이상의 웹사이트 조회수, 10만 3천번의 트위터 노출빈도, 4만 5천회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 참여율 등에서 괄목할만한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전 세계적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우회는 모든 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시기에 주한미군전우회가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전우회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을 연합하는 튼튼한 가교(家敎)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전우회가 이 중요한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대장 (예), 주한미군전우회 이사장 및 회장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때와 오늘, 미국인들은 주한미해병대에서 다음과 같이 정서를 공유하고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하는 것을 기리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지원병 분들과 참여해주신 주한미해병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영원히 제가 누릴 수 있는 삶과 자유에 대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매일, 저는 한국의 있는 나의 가족과 친지들을 구해준 수없이 많은 용감한 미국인들과 미국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년 11월 7일 유엔 사령부
년 11월 8일 한국전쟁은 제트추진식 항공기에 의한 역사상의 첫번째 공대공 전투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공군 조종사들은 후퇴익기 F-86A 세이버가 1950년 말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러시아산 제트기 MIG-15를 압도적으로 격추시키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세이버 전투기가 도착한 이후에는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며,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1953년 7월 말 무렵에, 38명의 미 공군 조종사들은 5기 혹은 그 이상의 적 항공기(거의 모두 MIG-15기들)를 격추함으로써 격추왕(ace)이 되었습니다. #이날에는무슨일이 #usaf 미합중국 공군



월 9일 (캠프 험프리에서) 과 11월 19일 (오산 공군기지), 주한미군 전우회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돕기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참모총장인 스티븐 C. 윌리엄스 소장은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주한미군은 굳건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왔다고 전하였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 CFC 웨비나: 1978년 11월 연합사 설립을 기념하여 현 연합사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 전 연합사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예)님, 전 연합사 부사령관 임호영 대장(예) 참석 주요 의제

- 한미동맹을 지원하고 북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연합사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 연합사 지휘관들과 참모들은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는가?
- 전작전 전환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사안
- 향후 2~4년동안 연합사가 나아가게 될 방향에 대한 전망